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연구

류다정*·김은호**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과 대상
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높임법 인식 및 사용 양상
 - 3.1.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조사
 - 3.2. 한국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4. 결론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양상을 검토하여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높임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rdajeong@gmail.com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eunhokim@cau.ac.kr

다. 실제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8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높임법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높임 어휘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선어말어미 ‘-(으)시-’를 과잉 사용한다. 셋째, 조사 ‘-께서’의 사용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높임법,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한국어교육, 특수목적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직접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높임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올바른 높임법 실현은 한국사회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도 하고, 서열문화와 경로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영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언어 규범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높임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 상황에서 불손하게 여겨져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

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김준모, 2015).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외국인 유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한국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낮은 현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¹⁾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체류 후에 모국으로 돌아간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어교육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용허가제의 단기 순환 원칙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10여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다(오영훈·하종천, 2019, 재인용).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낮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것의 일부이다.²⁾

[표 1] 외국인 근로자의 발화 내용 속 높임법 오류 양상

*사장님은(√께서) *우리(√저희)한테 텔레비전 무료로 *줬어요(√주셨어요). 텔레비전도 200개 채널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인들한테도 같은 거예요. *사장님이(√사장님께서) 외국인, 내국인 같이 *봐요(√보세요). 사장님 *나이(√연세)가 *나는(√저는) 알고 있는 게 1962년생이세요. *사장님이(√사장님께서) 지금 58살*(√세). 사장님 좋아요. 나쁜 말 안 *하고(√하지고), 이야기도 잘 *하고(√하지고). 그냥 생각이 외국인, 한국인 *없어요(√없으세요). *착해요(√착하세요). 만나면 계속 *웃으면서(√웃으시면서) *이야기해요(√이야기하세요).

- 1)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취업 자격을 얻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20년 2월 기준 총 60만 명에 육박하는 563,448명이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인 182,487 명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규모이다.
- 2) 인터뷰 응답자는 키르기스스탄인으로 한국에 온 지는 4년이 넘었으며, 한국어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넘는 한국어 학습자이다. 인터뷰 질문은 '본인이 일하는 곳의 사장님을 소개해주세요'였으며, 학습자의 발화 내용 중 오류 표시는 높임법에만 한정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높임법 오류를 문법적·어휘적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는 3장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 1]의 답화 내용의 오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오류, √:수정)

[표 1]의 발화 상황을 피면접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업 교사와의 인터뷰라는 점과 자신이 면접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고용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면접자의 발화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으나 높임법 오류는 상당히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언어예절을 대표하는 높임 표현에서의 오류는 문법이나 발음에서의 오류보다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이은희, 2010).

현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규정되어 필수 교육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 시간을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직장생활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 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이 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한국어 높임법 사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상태 유지 및 원활한 한국 생활을 위하여 높임법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한국어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⁴⁾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어 학습자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취업 전·후·중 단계에서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 국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총 45시간의 교육이 시행된다. 취업 후엔 국내 취업 교육기관(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서 한국의 직장 문화 및 관계법령 관련 등을 포함한 한국어교육 16시간이 시행된다. 취업 중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단체(외국인복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는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4) 실제로 임춘희(2016)에 의하면 한국인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한국어 능력'이었으며,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으로는 '한국어 능력 함양'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다면 업무 효율, 고용주 및 동료와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⁵⁾ 또한 그들의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높임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제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정·오답 빈도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류를 범한 예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 자세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문법성 판단 테스트’⁶⁾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빈칸을 완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객관식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 각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높임법을 사용하여 응답해야 하는 문항 15개에 대한 상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구민숙(2001)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를 서두로 2000년대 와서야 진행되었으며,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안설희(2003), 곽영숙(2008), 류영석(2008), 이유인(2018) 등이 있다.

6) 문법성 판단 테스트 설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중국어’로도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표 2] 외국인 근로자의 발화 내용 속 높임법 오류 양상

높임법	상황
주체 높임법	친구의 가족사진을 보고 친구 어머니의 키가 크다고 말하는 상황
	사장님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는 상황
	선배님에게 왜 잘 못 잤는지 물어보는 상황
	사장님이 직장 동료의 위치를 물어보는 상황
	언니가 동생에게 시험 날짜를 물어보는 상황
상대 높임법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선배님에게 자신이 한 포장 방법이 맞는지 물어보는 상황
	선생님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
	직장에서 처음 만난 상황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상황
객체 높임법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상황
	친구와 저녁을 먹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
	컴퓨터 수업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선생님과 함께 강당에 가겠다고 말하는 상황
	사장님에게 휴가가 언제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

설문 조사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⁷⁾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초·중급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86명이 참여하였다. 높임법은 주로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어 교수·학습되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라면 한국어 높임법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피험자들의 성별, 국적, 연령, 국내 거주 기간, 한국어 숙달도 및 학습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밝힌다. 조사에 참여한 86명의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3]과 같다.

7) 경기도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전남 광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3] 피험자 인적 사항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자	69	80.23
	여자	17	19.77
국적	캄보디아	19	22.09
	네팔	14	16.28
	베트남	13	15.12
	미얀마	11	12.79
	스리랑카	9	10.47
	우즈베키스탄	7	8.14
	필리핀	3	3.49
	태국	3	3.49
	중국	2	2.33
	인도네시아	2	2.33
	몽골	1	1.16
	러시아	1	1.16
	키르기스스탄	1	1.16
연령	20대	47	54.65
	30대	35	40.70
	40대	1	1.16
	50대	3	3.49
총		86	100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남자 69명(80.23%), 여자 17명(19.77%)으로 국내로 들어오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별이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분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국적 분포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다양한 국적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체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

표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은 20대가 47명 (5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도 35명(40.70%)으로 나타났다. 주로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 고용주들이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 4]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관련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한국에서 거주 기간	6개월 미만	5	5.81
	6개월 이상~1년 미만	7	8.14
	1년 이상~2년 미만	9	10.47
	2년 이상~3년 미만	13	15.12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숙달도	3년 이상	52	60.47
	초급	30	34.88
	중급	49	56.98
한국어 학습 기간	고급	7	8.14
	6개월 미만	7	8.14
	6개월 이상~1년 미만	22	25.58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12	13.95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20	23.26
	2년 이상	25	29.07
총		86	100

[표 4]는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86명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습자가 52명 (60.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숙달도는 '중급'으로 응답한 학습자가 49명(56.9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2년 이상'이 25명(29.07%)으로 가장 많았다.

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높임법 인식 및 사용 양상

3.1.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86명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조사는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학습 경험, 높임법 학습 방법,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한국어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와 사용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표 5] 한국어 높임법 학습 경험

질문	선택지	인원(명)	백분율(%)
높임법 학습 유무	배운 적 있음	78	90.70
	배운 적 없음	8	9.30
총		86명	100

[표 5]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78명(90.70%)이 한국어 높임법을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표 6] 한국어 높임법 학습 방법 (복수 응답)

질문	선택지	응답(명)
높임법 학습 방법	한국의 교육기관	56
	모국의 교육기관	12
	영상 매체(드라마, 영화 등)	8
	스스로 공부	7
	기타 ⁹⁾	2
	무응답	9

8) 한국어 높임법을 배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결과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임법 학습의 유무와는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제 높임법 사용 양상까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9) 기타의 의견으로는 '한국어 교재'가 있었다.

[표 6]은 한국어 높임법의 학습 방법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한국어를 학습한 방법으로는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배운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교육기관의 대부분의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

질문	선택지	응답(명)	백분율(%)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	필요함	85	98.84
	필요하지 않음	1	1.16
총		86명	100

[표 7]은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1명(1.16%)을 제외한¹⁰⁾ 85명(98.84%)이 한국어 높임법 교육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높임법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한국어 높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복수 응답)

질문	선택지	응답(명)
높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47
	한국은 격식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7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 실수했던 경험이 있어서	6
	정확한 높임법 사용으로 알맞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24
	기타	3
	무응답	4

10) 높임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연구자는 해당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본 연구는 학습 시간의 부족은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표 8]은 한국어 높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한국어 높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로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높임법 사용으로 알맞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 격식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 실수했던 경험이 있어서’가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는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9] 한국어 높임법 난이도

질문	선택지	응답(명)	백분율(%)
한국어 높임법 난이도	매우 쉽다	3	3.49
	쉽다	11	12.79
	보통이다	27	31.40
	어렵다	38	44.19
	매우 어렵다	7	8.14
총		86명	100

[표 9]는 한국어 높임법 난이도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한국어 높임법의 난이도는 ‘어렵다’에 응답한 학습자들이 38명(4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7명(8.14%)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한국어 높임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가 학습이 용이하지 않아 높임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한국어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 (복수 응답)

질문	선택지	응답(명)
한국어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	모국어와 차이가 있어서	20
	한국어 교재의 설명이 어려워서	15
	한국어 높임법 자체가 복잡해서	14
	한국어 선생님의 설명이 어려워서	0
	기타	1
	무응답	1

[표 10]은 한국어 높임법 난이도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로 응답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한국어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로는 ‘모국어와 차이가 있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교재의 설명이 어려워서’, ‘한국어 높임법 자체가 복잡해서’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한국어 높임법에는 비슷한 어휘가 많아서’와 ‘나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비슷한 어휘가 많다는 의견은 한국어에는 높임 어휘들이 많이 있으며, 의미와 어감이 비슷한 어휘가 많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충분한 한국어교육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인 학습자라는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한국어 높임법 사용 정도

질문	선택지	응답(명)	백분율(%)
높임법을 잘 사용하는지	매우 그렇다	2	2.33
	그렇다	27	31.40
	보통이다	38	44.19
	그렇지 않다	13	15.12
	전혀 그렇지 않다	6	6.98
총		86명	100

[표 11]은 학습자 스스로가 한국어 높임법을 잘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86명 중 38명(44.19%)이 자신이 한국어 높임법을 ‘보통’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높임법을 잘 사용한다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습자가 총 29명(33.72%)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결과는 뒤에서 살펴볼 전체 높임법 사용 오류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로 상반되는 결과로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국어 높임법 사용 실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질문	선택지	응답(명)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한국어 높임법 자체를 몰라서	3
	한국어 높임법을 알고는 있지만 틀릴까봐 두려워서	4
	모국어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높임법이 없기에 낯설어서	4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해서	8
총		19

[표 12]는 한국어 높임법 사용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높임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어 높임법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다. 응답자 중 78명(90.70%)이 한국어 높임법을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주 학습 방법으로는 한국의 교육 기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하였을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높임법 사용을 통한 적절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바른 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원활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높임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높임법 난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학습자들이 총 45명(52.33%)으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이유로는 ‘모국어와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 교재의 설명이 어려워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어의 높임법은 다른 나라 언어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어의 특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재의 설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어 교재 내의 한국어 높임법과 관련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은 스스로 한국어 높임법을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86명 중 과반 이상인 57명의 학습자가 한국어 높임법을 보통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높임법 사용 오류율과 비교하면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높임법 사용 수준과 실제 사용 능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한국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본 연구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지 86부의 결과를 ‘주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상대 높임

법 사용 및 오류 양상, '객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86명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오류율은 평균 68.22%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 86명 중 약 58명이 한국어 높임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오류율 분포는 13.33~93.33%으로 오류율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아래 [표 13], [표 14]는 높임법 세부 항목의 오류율과 높임법 범주별 평균 오류율에 대한 분포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높임법 전체 항목 오류율

유형	문항	높임법 항목	정답자(명)	오류율(%)	높임법 범주
단 답 형	1	주체 높임법	18	79.07	선어말어미 '-시-'
	2		29	66.28	주격조사 '-께서'
	3		25	70.93	높임 어휘
	4	상대 높임법	43	50.00	종결어미
	5		28	67.44	종결어미
	6	객체 높임법	8	90.7	여격조사 '-께'
	7		0	100	높임 어휘
	8		12	86.05	여격조사 '-께'
객 관 식	9	주체 높임법	54	37.21	압존법
	10		32	62.79	주격조사 '-께서'
	11	상대 높임법	13	84.88	대명사
	12		51	40.70	호칭
	13		50	41.86	호칭
	14	객체 높임법	29	66.28	높임 어휘
	15		18	79.07	여격조사 '-께'

[표 14] 높임법 범주별 평균 오류율

높임법 범주	평균 오류율(%)	순위
주체 높임법	63.26	2
상대 높임법	56.98	3
객체 높임법	84.42	1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높임법 범주 중에서 외국인 근로

자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높임법은 객체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객체 높임법의 오류율은 평균 84.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주체 높임법(63.26%), 상대 높임법(56.98%) 순서로 나타났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다른 높임법 항목에 비해 낮은 오류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반말’과 ‘높임말’의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아요’, ‘-(ㅂ)습니다’ 등의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법을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어/아요’, ‘-(ㅂ)습니다’와 같은 항목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기초 단계에서 ‘높임말’을 실현하는 기본 종결 표현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류율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순서로 외국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한국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제시하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주목할 만한 항목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¹¹⁾

3.2.1. 주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주체 높임법 범주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선어말어미 ‘-시-’와 주격조사 ‘-께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과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표 15]는 주체 높임법의 세부 항목별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주체 높임법 세부 항목별 오류율

범주	오류율(%)	순위
선어말어미 ‘-시-’	79.07	1

11)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기술한 단답형 유형의 문항들은 본문에서 모두 다루었다. 다만, 객관식 문항의 경우 15개 문항 전체를 다룰 경우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상황’만 다루게 되어 독자가 오류의 구체적인 양상과 맥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체 높임법의 경우, ‘압존법’과 관련된 문항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낮아 본문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경우에는 문항수와 오류율을 기준으로 ‘호칭’과 ‘높임어휘’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격조사 '께서'	64.53	3
압존법	37.21	4
높임 어휘	68.61	2

[표 15]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체 높임법의 세부 항목별 오류율¹²⁾은 선어말어미 '-시'(79.07%) > 높임 어휘(68.61%) > 주격 조사 '께서'(64.53%) > 압존법(37.21%) 순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선어말어미 '-(으)시-'와 주격조사 '께서', 높임 어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어말어미 '-(으)시-'

본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의 선어말어미 '-(으)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황을 다음 <상황1>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황1> 친구의 가족사진을 보고 친구 어머니의 키가 크다고 말하는 상황
수잔: 뭐야? 가족사진 보는 거야?
민태: 응,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수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분이 어머니이셔? 키가 정말 ().
민태: 그렇지? 내가 어머니 닮아서 키가 큰가 봐.

<상황1>은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이 선어말어미 '-(으)시-'가 사용되는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문항이다. <상황1>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친구에게 청자의 어머니의 키가 크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친구의 어머니가 대상이 되는 주체 높임법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서술어인 '크다'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결합하여 '크시다' 혹은 '크시네'

12) 동일한 세부 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기준은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라고 표현해야 정답으로 간주하였다. 다음 [표16]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시-’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의 예이다.

[표 16] <상황1> 선어말어미 ‘-시-’ 사용 오류의 예

<상황1>		
ㄱ. 크다	ㄴ. 커(요)	ㄷ. 크다
ㄹ. 높아(요)	ㅁ. 큰	ㅇ. 크네
ㅂ. 큰가봐	ㅅ. 커 보인다	ㅈ. 큰 편이야

[표 16]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임법 사용 오류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크다’, ‘커(요)’, ‘크네’ 등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제대로 된 주체높임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 대부분이 단어의 기본형인 ‘크다’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맞춤법 오류인 ‘큰다’도 있었다.¹³⁾

2) 주격 조사 ‘께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가 실현되는 상황을 아래 <상황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황10> 언니가 동생에게 시험 날짜를 물어보는 상황
핑잉: 우리 토픽 시험이 언제였지? 27일이었나?
로만: 네, 언니. 저번에 선생님(①이 ②한테 ③의 ④께서 ⑤께) 27일이라고 하셨어요.
핑잉: 그래? 이따 오시면 여쭙봐야겠다.

<상황10>은 주격 조사 ‘께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의 이해

13) 본 연구의 논지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크다’와 유사하지만 사물의 높이를 표현할 때 적합한 어휘인 ‘높다’를 사용한 학습자가 2명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부족한 어휘 습득 혹은 알맞은 어휘 사용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와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 문항이다. ‘선생님’은 대우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주격 조사 ‘이/가’ 대신 존대의 의미를 가진 주격 조사 ‘께서’를 주체에 연결해야 한다. 다음 [표 17]는 주격 조사 사용 오류 양상 분포이다.

[표 17] <상황 10> 주격 조사 사용 오류 분포

선택지	①이	②한테	③의	④께서	⑤께
응답자 수(명)	25	15	0	32	14

오답 선택지에서는 ‘①이’를 선택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생님’이 높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격 조사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높임 어휘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이 높임 어휘 사용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높임 어휘 관련 문항을 제시하였다.

<상황2> 사장님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는 상황
바크태: 사장님, 어제 ()이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맙네. 그런데 어제가 내 생일이었던 걸 어떻게 알았나? 바크태: 옐리가 말해줬어요.
<상황3> 선배님에게 왜 잘 못 잤는지 물어보는 상황
야시스: 선배님, 오늘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제대로 못 ()? 네마티로: 응, 4시간밖에 못 잤거든.. 야시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마티로: 일이 너무 많았어.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다.

<상황2>에서는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신의 생일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되묻는 대화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사장님의 ‘생일’을 지칭해야 하기 때문에 ‘생일’의 높임 어휘인 ‘생신’이 된다. <상황3>은 화자가 선배인 청자에게 제대로 못 잤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다. 이때 청자는 선배이기 때문에 주체를 높여서 발화해야 한다. 따라서 ‘자다’의 높임 어휘인 ‘주무시다’가 사용되어야 올바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의 높임 어휘 오류 양상은 [표18]과 같다.

[표 18] <상황 2>, <상황 3> 높임 어휘 사용 오류의 예

<상황 2>	<상황 3>
ㄱ. 생일 ㄴ. 결혼	ㄱ. 자셨죠 ㄴ. 잔 것 같아요 ㄷ. 잤죠 ㄴ. 잤어요 ㄷ. 자는가봐요 ㄹ. 자요

<상황2>의 오류 양상 중에서는 높임 어휘가 아닌 ‘생일’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이라는 상황과 맞지 않은 어휘를 적은 응답자도 1명 있었다.¹⁴⁾ <상황3>의 오류 양상은 위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선어말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자셨죠’라고 과잉존대로 응답한 것과 기본형 ‘자다’를 활용한 오류를 비롯하여, ‘아/어요’를 사용한 다양한 오류의 예가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은 ‘아/어요’의 사용을 통해 존댓말 개념으로서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2>와 <상황3> 문항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를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¹⁵⁾

14) 대화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응답한 결과로 짐작된다.

15) 높임 어휘와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6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업에서 높임 어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생신’과 ‘주무시다’를 필수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선정된 교사들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균 3.5년 이상이다.

그 결과, 교사들은 높임 어휘 교육 시 ‘생신’과 ‘주무시다’를 필수 어휘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문항에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보다 명확한 높임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2.2. 상대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상대 높임법 사용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종결어미, 호칭어, 대명사를 사용하여 높임법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 5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상대높임법 항목별 오류율

상대높임법	오류율(%)	순위
종결어미	58.72	2
대명사	84.88	1
호칭어	41.28	3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 높임법의 세부 항목별 오류율은 대명사(84.88%) > 종결어미(58.72%) > 호칭어(41.28%)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그 중 종결어미, 호칭어의 상대 높임법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결어미

본 설문조사에서는 종결어미가 실현되어야 하는 상황을 아래 <상황4>와 <상황5>와 같이 제시하였다.

〈상황 4〉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사장님: 사람 씨, 저기 물류 창고에서 망치 하나만 가져다 줘. 사람: 네, 망치 하나만 가지고 오면 ()? 사장님: 응, 하나만 가지고 오면 돼.
〈상황 5〉 선배님에게 자신이 한 포장 방법이 맞는지 물어보는 상황
소포안: 선배님, 이렇게 포장하는 게 ()? 선배: 응, 그렇게 만드는 거 맞아. 처음이라면서 잘 만드는데? 소포안: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상황4>에서 화자는 직원으로 청자인 사장님의 지시에 대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를 사용하여, ‘되나요’, ‘됩니까’로 실현되어야 하는 문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5>에서는 직장 선배에게 자신의 포장 방법이 맞는지 화자인 후배가 질문하는 상황으로 ‘맞나요’, ‘맞습니까’ 등을 사용해야 올바르다. [표 20]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대 높임법 종결어미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표 20] 〈상황 4〉, 〈상황 5〉 종결어미 사용 오류의 예

〈상황 4〉	〈상황 5〉	
ㄱ. 되세요 ㄴ. 될 거예요 ㄷ. 돼 ㄹ. 되시나요	ㄱ. 어떠세요 ㄷ. 맞다 ㄴ. 어때	ㄴ. 좋아요 ㄹ. 맞으세요

<상황4>와 <상황5>는 사장님과 직장 선배가 청자이기 때문에 반말인 ‘해체’의 종결어미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표 20]을 살펴보면 ‘돼’, ‘어때’처럼 반말체인 ‘해체’를 사용한 학습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으)시-’를 사용하여 과잉존대로 ‘되시나요’와 ‘어떠세요’, ‘맞으세요’ 등

의 오류 유형도 자주 나타났다.

2) 호칭어

호칭어는 상대방이나 어떠한 대상을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다. 상대 높임법 항목 중에서 호칭어는 대명사 사용 오류율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바른 호칭어 사용을 통해 높임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였다.

<상황12> 직장에서 처음 만난 상황
왕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온 왕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민: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민입니다. 섬유 공장 일은 처음이세요? 왕강: 네, 목재 공장에서 일한 적은 있는데 섬유 공장은 처음이네요. (①그쪽 ②형 ③너 ④재민이 ⑤재민 씨)은/는 여기에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김재민: 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상황13>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상황
간호사: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환 자: 어제부터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이 계속 나와서요. 간호사: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감기일 것 같은데.. 우선 접수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환 자: 정해운입니다. 간호사: 네, (①정해운 씨 ②정해운 ③해운아 ④정해운 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상황12>의 대화 전문을 살펴보면 청자와 화자가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보통 2인칭 대명사가 아닌 호칭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인다. 따라서 선택지 중 '재민 씨'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이 처음 만난 청자를 가장 적절하게 높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13>은 병원에서 간호

사가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때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대우하여 표현한다. 선택지 중에서 대우 표현이 나타난 것은 ‘정해운 씨’와 ‘정해운 님’이다. 이때 ‘-씨’는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하거나 동료를 대우할 때 사용되므로 ‘정해운 님’이 올바르다. <상황 12>와 <상황 13>에 대한 호칭어 사용 부분의 오류 분포는 아래 [표 21], [표 22]와 같다.

[표 21] <상황 12> 호칭어 사용 오류 분포

선택지	①그쪽	②형	③너	④재민이	⑤재민 씨
응답자 수(명)	9	18	1	7	51

[표 22] <상황 13> 호칭어 사용 오류 분포

선택지	①정해운 씨	②정해운	③해운아	④정해운 님
응답자 수(명)	34	1	1	50

<상황12>는 ‘재민 씨’가 정답이지만 ‘②형’을 정답으로 고른 학습자가 다른 선택지에 비교적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과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화자와 청자 모두 남성인 점과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형’을 정답으로 골랐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상황13>의 오류 분포에서는 ‘①정해운 씨’의 사용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씨’보다 ‘-님’이 청자를 더 높이는 표현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접미사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3. 객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

객체 높임법 사용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격조사 ‘-께’를 사용하는 문항과 높임 어휘를 사용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의 객체 높임법의 세부 항목 오류율은 [표 23]과 같다.

[표 23] 객체 높임법 항목별 오류율

범주	오류율(%)	순위
여격조사 '-께'	85.27	1
높임 어휘	83.14	2

오류는 여격조사 '-께'(85.27%) > 높임 어휘(83.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객체 높임법에서는 학습자들이 여격조사 '-께'의 학습과 사용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여격조사 '-께'

올바른 객체 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께'를 사용하여 높임법을 실현해야 하는 문항을 다음과 같이 2개의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상황6〉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상황
탐: 지금 사장님 목소리 잘 들려? 싘티: 아니, 잘 안 들려. 소리가 너무 작은데? 탐: 사장님() 잘 안 들린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싘티: 내가 말씀드리고 올게.
〈상황8〉 컴퓨터 수업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디나라: 컴퓨터 수업도 듣고 싶은데.. 같이 들을래? 몬티타: 아니, 나는 한국어 수업만 들을래. 너무 바빠. 디나라: 알겠어. 그런데 컴퓨터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야 돼? 몬티타: 사무실에 계신 정해윤 선생님() 신청하면 된다.

<상황6>은 동료 직원 두 명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러 가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직원들끼리는 서로 동료이기 때문에 높임법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장님이기에 대우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게'가 아닌 '-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법을 실현해야 한다. <상황6의> 대화 중 ‘말씀’이라는 것도 사장님을 대우하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상황8>의 선생님 또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래 [표 24]는 객체 높임법 사용 문항인 <상황6>과 <상황8>의 사용 오류의 예이다.

[표 24] <상황6>, <상황8> 여격조사 ‘-께’ 사용 오류의 예

<상황6>	<상황8>
ㄱ. 이	ㄱ. 한테
ㄴ. 에게	ㄴ. 에게
ㄷ. 께서	ㄷ. 께서
ㄹ. 을	ㄹ. 도

<상황6>과 <상황8>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이’, ‘-에게’, ‘-한테’ 등의 조사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높임 표현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이 조사의 사용의 적절한 위치는 인지하고 있으나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과 사용 능력은 부족하여 조사 사용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문항 모두 ‘사장님’과 ‘선생님’이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께’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께서’의 사용이 많은 비율로 발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께서’와 ‘-께’를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높임 어휘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높임법으로,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정 높임 어휘가 있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뵤다’와 ‘모시다’ 2개의 어휘를 고려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황7〉 친구와 저녁을 먹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
진우: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레이먼: 저녁? 뭐 먹고 싶은데? 진우: 삼겹살 어때? 레이먼: 그래, 좋아! 그런데 나 사장님 좀 () 가야 돼. 아까 나보고 퇴근 전에 잠깐 오라고 하셨어. 진우: 다녀와. 나는 먼저 내려가 있을게.
〈상황14〉 친구와 저녁을 먹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
황 선생님: 권 선생님이 강당 위치를 잘 모르시겠대. 센터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어떻게 하지? 시남: 선생님! 그럼 제가 권 선생님 (①가지고 ②데리고 ③챙기고 ④모시고) 강당으로 갈게요. 황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해 주면 고맙지. 부탁할게.

<상황7>은 직장 동료끼리 저녁 식사를 약속하는 대화 상황에서 한 직원이 상대방에게 사장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직원은 사장님을 높여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뵙다’라는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법을 실현해야 한다. <상황14>는 학생이 선생님을 높여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데리고’의 높임 표현인 ‘모시고’가 정답이다. 다음 [표 25], [표 26]는 객체 높임법 오류의 예와 분포이다.

[표 25] 〈상황7〉 높임 어휘 사용 오류의 예

〈상황7〉		
ㄱ. 만나러	ㄴ. 보러	ㄷ. 보고
ㄴ. 만나	ㄹ. 불라고	
ㄷ. 보시려	ㅁ. 뵙으러	

<상황7>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86명 모두 정답을 맞이지 못하여 오류율이 100%에 달한 문항이다. 해당 문항의 정답으

로는 ‘뵈고’, ‘뵈러’를 사용해야 올바르지만 [표 25]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만나러’, ‘보시러’, ‘보고’ 등 높임법을 실현하지 않거나 과도한 ‘-(으)시-’ 사용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대부분은 ‘뵈다’라는 어휘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뵈다’는 초급 단계¹⁶⁾의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음을 볼 때 다양한 높임 어휘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6] <상황 14> 높임 어휘 사용 오류 분포

선택지	①가지고	②데리고	③챙기고	④모시고
응답자 수(명)	23	30	3	30

위의 [표 26]을 보면 <상황14>의 오답 선택지에서 ‘②데리고’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특정 장소에 같이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사람 혹은 비슷한 나이인 대상에게 사용할 땐 담화 상황에서 본다면 ‘데리고’가 맞다. 그러나 <상황14>에서는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가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을 높여 ‘모시고’를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들이 높임 어휘 사용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살펴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높임법

16)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어휘 내용 검색’을 사용하여 어휘 난이도를 확인하였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 중인 8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어 높임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스스로 한국어 높임법을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인 오류율은 평균 68.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높임법은 객체 높임법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조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높임 어휘 교수의 필요성,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등을 중심으로 한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한국어 높임법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높임법 사용 양상과 관련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높임법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Korean honorific of migrant workers

Ryu, Da-jeong(Chung-Ang University)

Kim, Eun-ho(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migrant workers' awareness of Korean honorific system and actual use of it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teaching on Korean honorific. Data were gather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learner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form teachers. To identify the actual use of Korean honorific, a total of 86 migrant workers participated in a survey on the use of honorific.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migrants workers of Korean lack the ability to use Korean honorifics. Second, they overuse pre-final ending ‘-(으)시(-(eu)si-)’. Third, they tend to overgeneralize the use of postpositional particle ‘-께서 (-ggyeseo).’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 on Korean honorific for migrant workers.

Key word: migrant workers, Korean honorification, honorific nouns, honorific verbs, relative honorific, Korean Education, Special Purpose Korean Language

[참고문헌]

□ 논문

- 곽영숙,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8, 293-342면.
- 김준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5.
- 류영석,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입국 예정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 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 77-102면.
- 안설희,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오용훈·하종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에서의 문화갈등 사례 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8,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125-146면.
- 이은희,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2010, 280-315면.
- 이유인,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8.
- 임춘희,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어려움 및 대저-충남 서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9),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171~189면.